

	명칭(한글)	가락국수로왕릉비					
	명칭(한자)	駕洛國首露王陵碑					
문화재지정	비지정						
시대/연대	시대	조선		연대	1647년(인조25년)		
유형/재질	유형	비문		재질	돌		
크기	높이 200cm, 너비 92cm, 두께 24cm						
출토지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소재지	(한국)-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 (한국)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서체	해서(楷書)						
제작자	찬자	미상		서자	미상	각자	미상
개관	<p>이 비는 1647(인조 25년)에 경상남도 김해군 서상동 수로왕릉 안에 건립된 가락국수로왕릉비(駕洛國首露王陵碑)이다. 비의 이면(裏面)에 의하면 수로왕의 성은 김씨이고 42년에 태어나 가락국(駕洛國)을 세운 후 199년에 흥하여 남릉(納陵)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가락국은 532년에 9대 491년으로 망하였고, 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황후의 성을 하사한 아들 둘이 허씨의 근원이 된다. 1580년에 후손인 허엽(許曄)이 방백(方伯)이 되어 묘를 정비했으나 임진년(1592년)에 왜구가 파헤쳐 정해년(1647년) 중춘(仲春)에 비를 세우고 상(床)과 섬돌 등을 정비하였다. 이때 일을 맡은 동종(同宗)으로 허목(許穆), 허륜(許崙), 허□(許□), 허가(許垓)를 밝히고 있으며, 이 비를 세운 것은 자손이 근본에 보답하려는 정성에 있다고 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 편과 함께 수로왕의 탄생과 치적 및 국가체제 형성 이전 단계의 소박한 사회 풍속과 정치 운영의 일면 등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p>						

참고문헌	<p>(단행본)</p> <p>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p> <p>조동원편저, 『한국금석문대계』 4,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p> <p>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 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p> <p>(논문)</p> <p>李丙燾, 1962, 「首露王考」 『歷史學報』 17·18합집, 역사학회</p>
관련금석문	허엽신도비(許曄神道碑)

판독	
판독자	진성규

金海 駕洛國首露王陵碑

駕洛國首露王陵 (表 面)

(裏面)

王姓金氏生於漢光武建武十八年始建國號駕洛薨於獻帝建安
四年壽百五十八葬納陵 首露史稱 王名因以爲 王號云梁
大通四年國亡傳世九歷年四百九十一 王有子十人感 后言
賜 后姓者二東方之許本原于此 王之世治臻淳庀邦人追思
王以報德至今冬至祀用大牢以 后配焉葬後千有餘載逮皇
明萬曆庚辰後孫許曄爲方伯脩墓備床砌壬辰倭寇掘發鄉人改
封之後庚辰六十七年丙戌積以遺紹而忝按道又加封植碑于墓
前惟月若日工告訖功實丁亥仲春也床若砌亦皆新焉而安于樽
所者卽前日陳牲石也同宗幼學穆省峴察訪嶠進士嶠新寧縣監
坵幹其事噫煌煌功德浹民骨入民耳深一片石不足爲輕重在子
孫報本之誠又安得不爾

後孫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許積謹撰

外裔幼學全榮謹書

해석	
해석자	진성규

駕洛國首露王陵(表面)
(裏面)

왕의 姓은 김씨이고 漢 光武 建武 18년(A.D. 42년)에 태어나 처음 나라를 세워 가락이라 이름하였다. 獻帝 建安 4년(199년)에 158세로 흥하여 納陵에 장사지냈는데 首露라는 역사상 호칭은 왕명을 왕호로 삼았기 때문이다. 梁 大通 4년에 나라가 망하니 대대로 전한 것이 9대 491년이다. 왕은 열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황후의 딸에 감동하여 황후의 성을 하사한 아들이 둘로 동방의 허씨는 이 에 근원한다. 왕이 세상을 다스림에 매우 순박하고 넉넉해서 나라 사람들이 왕을 추모하여 덕에 보답하고자 지금에 이르도록 冬至 이래 大牢로 제사를 지내고 황후도 배향하였다. 장례를 지낸지 천여년 후 皇明 萬曆 庚辰(1580년)에 후손 許曄이 方伯이 되어 묘를 정비하고 床과 섬돌을 갖추었는데 임진년(1592년)에 왜구가 파해쳤다. 鄉人이 무덤을 수리한 것이 庚辰 67년 후인 丙戌(1646년)로 남기고 계승한 것을 모아(수리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흙을 쌓고 묘 앞에 비를 세웠다. 某月某日에 공사를 마치니 실로 丁亥年(1647) 仲春이다. 床과 섬돌은 또한 모두 새 것이나 술잔을 놓는 자리는 바로 지난 날에 희생을 진설했던 돌이다. 同宗인 幼學 許穆, 省峴 察訪 許崙, 進士 許瓘, 新寧縣監 許坵가 그 일을 맡았다. 아! 빛나고 빛나는 공덕은 백성의 뼈에 사무치고 백성의 귀에 깊이 들어갔다. 한 조각의 돌로 족히 그 경중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손이 근본에 보답하려는 정성에 있어서야 어찌 또한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